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 부산광역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Developing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Focused on Group Home and Shared Housing for Aging in Place - Focused on the Elderly Lived in Detached Housing, Busan -

오 찬 옥*
Oh, Chan-Oh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the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from the viewpoint of aging in place. The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alternatives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group home and shared housing. In order to achieve it,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roup home and shared housing were examined. The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and the home sharing related needs of them were examined. The subjects were 201 older persons whose age was more than 65 years and lived in detached houses. Results were as follows; 1) It was identified that group home and shared housing were acceptable to the subject aged. 2) The modified group home which consisted of less than 10 individual detached houses and common area wa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the elderly. The individual ones were existing ones which the elderly lived in. The common area included of common kitchen, dining room, bathroom, and living room for about 10 old persons. The common area can be provided by building a new one and remodeling the existing building for other purpose or community center for the elderly. The detached houses which had spare bedrooms can be shared by another old persons. This alternative would be economic and useful to the elderly.

Keywords : group home, shared housing, home sharing, aging in place,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elderly

주요어 : 그룹 홈, 공유주택, 주택공유, 거주지 거주, 노인주거대안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9.5%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14.0%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6). 다른 선진 외국 국가와는 달리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20년으로 최단기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즉 다른 외국 국가들은 노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이에 대한 점진적인 준비가 가능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짐과 동시에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많은 생활이 주택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노인이 될수록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진다. 이는 곧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편안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인주택에 대한 준비는 물론 방향설정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극히 일부의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된 몇 개의 노인주거단지, 반대로 극빈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로원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며, 노인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산층 노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노인주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 외국에서 이제까지 개발되어 온 노인주거유형은 크게 자립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콘도미니엄 형태의 노인주거단지, 최근에 많이 제공되고 있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약간의 도움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생활보조주택(assisted living facilities), 노인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로 대별해 볼 수 있고, 이외에 이들 노인주거유형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형태의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그룹 홈(group home), 삼대동거주택인 ECHO 주택 또는 grany flat 등이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G00042).

있다. 그러나 노인들만을 교외의 조용하고 햇볕이 잘 드는 쾌적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게 한 결과, 가족은 물론 젊은이들이나 친구, 친지와 접촉이 제한받게 되어 삶에 생기를 잃게 되는 등 노인들의 삶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¹⁾ 따라서 움직임이 제한받는 노인일수록 교통, 상점, 문화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으며, 또한 친숙한 환경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한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사회 내에서 그대로 살게 하여야 한다는, 즉 aging in place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²⁾

따라서 최근의 세계 각국의 노인주택 개발 방향은 aging in place를 전제로 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의 경우 교외 노인주거단지나 CCRC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도달한 결론이 이 aging in place이다. 노인이 되면 낯선 곳으로의 이동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이 느릴 뿐 아니라 이제까지 유지해 온 모든 인간관계 및 환경과의 두절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어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 충격이 크게 되며 이는 노인의 신체적 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이제까지 살아온 친숙한 환경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aging in place는 노인으로서 하여금 이제껏 살아온 친숙한 환경에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으로, 친근한 주거환경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에 기여한다. 또한 택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새로 노인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존의 주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잘 적용시킨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적합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³⁾

그룹 홈은 본래 스웨덴에서 개발된 주거유형의 하나로, 특히 방향감각의 상실과 배회증세를 보이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지닌 집이다.⁴⁾ 대개 6-8인이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되 개인마다 침실과 거실, 욕실,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된 개인공간이 주어지고 부엌이나 식당, 거실 같은 공동공간은 같이 사용하도록 구성된 주택을 말한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공유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일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그룹 홈을 치매노인만이 아닌 일반 노인에게도 적용가능한, aging in place를

위한 주거대안의 하나라고 보고 접근하고자 한다.

공유주택(shared housing)은 공간 사용에 있어서는 그룹 홈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즉 개인침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부엌이나 식당, 거실 같은 공동공간은 각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⁵⁾ 대개 공유주택에는 주택 당 비혈연 관계에 있는 2인이 거주한다. 그러나 그룹 홈은 주로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유주택은 서로의 잉여자원을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주거대안을 개발하는데 있어 aging in place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하며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방식과 요구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인주거대안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주거생활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동거형태 관련 주거요구를 파악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토대로 한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의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 문헌조사 -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 면접조사 -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하여 주거생활실태와 주거요구를 조사하였다.

II.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개념 및 특성

1. 그룹 홈의 개념 및 특성

그룹 홈은 스웨덴에서 치매노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시작된 주거유형으로, 6-8개의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한다. 각 개인공간은

1) 이연숙(1993), 한국 노인주택 모델방향설정 및 제1 대안적 주택 유형, p.10,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설정.

2) 오찬옥(2002), 노인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디자인의 방향, p.138, 한국노년학회 및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주택과 서비스 개발방향

3) 오찬옥(2002), 상계서, p.138

4) 김대년, 최정신, 조명희, 권오정(2000), 개발 이념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용 그룹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5호, pp.22-23

5) Dobkin, L.(1983), Shared Housing for Older People, National Shared Housing Resource Center, Inc.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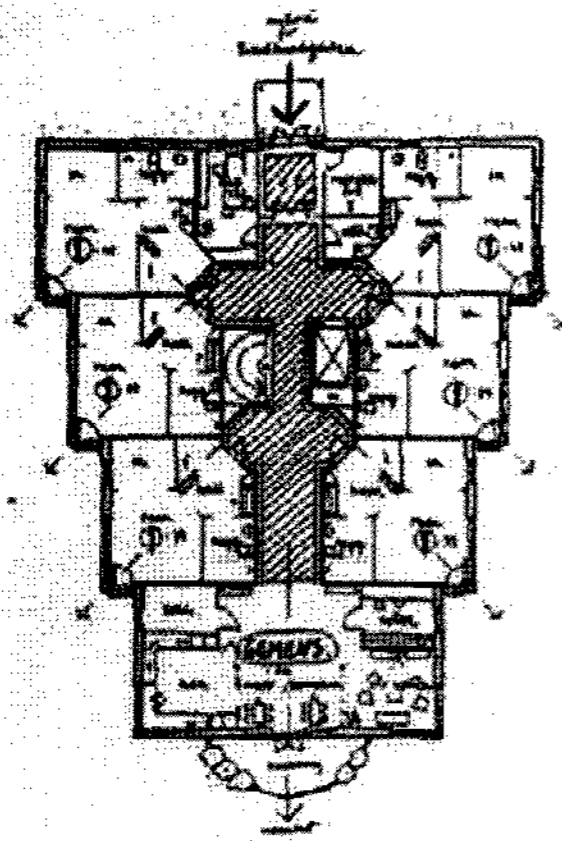


그림 1. 스웨덴의 그룹홈 사례

침실, 욕실, 거실, 수납공간 등으로 구성되고, 공동공간은 식당과 부엌 및 거실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치매노인 그룹 홈은 크게 개인공간과 그룹공간, 공용공간으로 구성되며, 이중 그룹공간은 개인실 근처나 복도 벤치 같이 3-4인 정도를 위한 소그룹공간과 거주자 모두가 사용가능한 거실과 식당 같은 대그룹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그룹 홈은 소규모 집단 안에서 인지기능에 손상이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공동 활동을 하면서 정체성, 안전성, 자신감을 추구한다는 기본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다.⁷⁾ 따라서 공동공간은 일상생활활동, 지능훈련과 외부의 사회적 부양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 되며, 공동공간이 개인공간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또한 공동공간과 개인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시키느냐하는 것이 그룹 홈을 디자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이 된다.⁸⁾

스웨덴에서 다양하게 시도된 그룹 홈의 개발이념으로는 젊은 층과 노인이 혼합되어 살게 되어 있는 연령통합형, 특별히 노인만을 위해 지은 연령분리형, 농촌의 환경과 생활을 그대로 보존하여 지은 농가형, 낡은 주택을 개조한 형, 병원 디자인 개념으로 지어진 너싱홈 같은 오래된 시설을 개조한 형,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작은 상점 등이 같이 있는 통합단지형, 정신병이나 노인병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형, 건축 재료나 색채, 연결디자인 등에서 생태학적 이념이나 영감을 도입한 형 등이 있다.⁹⁾ 이는 그룹 홈을 디자인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가능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그룹 홈을 치매노인만이 아닌 일반 노인들에게도 적합한 주거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자 한다.

2. 공유주택의 개념 및 특성

공유주택은 노인에게 자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주거대안으로, 2인 이상의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고 주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¹⁰⁾ 공유주택의 각 거주자는 자신의 개인 침실을 사용하고 출입구, 거실, 부엌, 세탁실과 같은 공동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욕실은 대개 각자 사용하나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지방 정부나 사회기관이 운영하는 주택소유주와 입주자를 연결시켜 주는 연결(match-up)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신청을 한다. 공유주택에서 동거할 거주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있으며, 객관적 기준에는 연령, 수입, 임대료, 주택유형, 지역, 거주예정기간, 제2의 주택대안, 건강상태 등이 포함된다. 지역조건은 인구 30만 이상이 되어 지원자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지역이 바람직하며, 거주 노인의 건강상태는 자립생활이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적절하다.¹¹⁾

주택을 공유하게 되는 주된 동기는 경제적 이유와 동료애이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동료애보다는 건강케어와 안전성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주자를 구한다.¹²⁾ 이러한 공유주택은 그룹 홈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융통성도 있지만 프라이버시는 적은 편이다. 한편, 실제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유주택에 거주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성격차이에서 오는 문제, 요리와 가사일로 인한 문제, 그 다음이 프라이버시의 순으로 지적되었다.¹³⁾

공유주택이 개인 차원에서 갖는 특성¹⁴⁾은 ① 집을 공동 사용하면서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공동 관리하게 되어 주거비를 경감시켜 준다. ②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 자기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어 안전성을 제공해 준다. ③ 기존의 주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④ 이웃에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통합되게 해준다. ⑤ 혼자 거주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여 준다. ⑥ 동료애가 증가됨으로써 사회적 및 감성적 지원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⑦ 상호의존을 통하여 자기결정과 자립성을 장려해 준다. ⑧ 세대간 협동과 이해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특성은 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준다. ② 요양소나 기타 시설과 같은 비싸고 격

6) 구한나리, 최령, 이연숙(2002), 치매노인을 위한 일본 그룹홈 현장 사례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권1호, p.141

7) 권오정, 조명희, 김대년, 최정신(2000),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권5호, p.42

8) 최정신, 이언 폴슨(1997),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의 그룹홈, 한국주거학회지 8권3호, pp.67-79

9) 김대년, 최정신, 조명희, 권오정(2000), 전게서, pp.23-25

10) Dobkin, L.(1983), 전게서, p.1

11) Dobkin, L.(1983), 상게서, p.8

12) Pynoos, J., Hamburger, L., and June, A.(1990), Supportive Relationships in Shared Housing, p.8, in Pastalan L. A.(ed.)(1990), Aging in Place: The Role of Housing and Social Supports, The Haworth Press, Inc.

13) Pynoos, J., Hamburger, L., and June, A.(1990), 상게서, p.13

14) Day-Lower, D.(1983), Shared Housing for Older People: A Planning Manual for Group Residences, Shared Housing Resource Center, Inc. p.2

식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준다. ③ 저소득 노인의 주택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주택을 디자인할 때는 독거와 친밀함을 위한 적합한 개인공간을 개발하는 것과, 상호작용과 사회성을 촉진시켜 주는 공동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¹⁵⁾ 또한 공유주택은 서로 다른 일상생활과 사회적 패턴을 가진 비혈연 개인들로 구성되므로, 핵가족의 경우보다 융통적이고 다양하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유주택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단독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잉여자원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주택이나 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주거대안이 되리라 보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상 살펴 본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특성비교

특성	그룹 홈	공유주택
개발국가	스웨덴	미국
공간구성	6-8개의 개인공간과 공동공간	2-3개의 개인침실과 공동공간
	-개인공간: 침실, 욕실, 거실, 수납공간으로 구성된 완전 독립된 영역	-개인공간: 일반 침실과 욕실 (없을 수도 있음)
	-공동공간: 거실, 식당, 부엌	-공동공간: 거실, 식당, 부엌, 세탁실 등
거주대상 인원수	6-8인	대부분 2인 (여유침실 있을 경우 2인 이상도 가능)
거주대상 노인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동거자 필요로 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집안일 공유가능한 노인 등
기본목적	케어 제공	잉여자원 공유 통한 자립생활
주택 소유권	임대	주택소유 노인: 소유 입주 노인: 임대
식사, 청소 등 집안 일	케어 제공자 측 (전문가)	집 소유 노인이나 입주 노인 등 개인 차원에서 해결
정서적 측면	정체성, 안정성, 자신감 갖게 함	-자립성, 주거 안전성, 동료에 제공 -프라이버시 부족
소요 비용	주택 임대비용+관리비용+케어비용	주택 임대비용 그룹홈보다 경제적임

III. 노인의 주거생활실태 및 요구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조사대상 노인은 부산광역시의 15개 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2개 구 9개 동¹⁶⁾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201명이었다.

15) Day-Lower, D.(1983), 전계서, p.19

16) 노인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9개동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해운대구의 우2동, 반송 1,3동, 중1동과 부산진구의 부암3동, 당감3,4동, 가야1동, 범천4동.

조사대상 선정은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임의표집하였으며, 조사는 면접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전 훈련을 받은 5인의 연구원이 예비조사를 거쳐 2006년 7월과 8월에 일대일 면접방법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연령, 가족수, 가족형태, 건강상태, 학력, 소득),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주택평수, 침실 수, 욕실 수)과 주거생활실태(주택소유상태, 주택거주기간,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 주택에서 주로 머무는 곳, 친구나 이웃과 만나는 빈도, 장소, 집에서의 접대장소), 주택공유와 관련된 주거요구(거주위치에 대한 요구, 동거형태에 대한 요구, 주거유형과 침실 개수 및 주택평수 요구)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그룹 홈과 공유주택이 특히 노인에게는 낯선 개념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요구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조사대상 노인은 여자노인이 72.1%로 남자노인보다 많았고, 연령은 70대 초반이 30.3%, 60대 후반이 26.4%, 70대 후반이 23.9%의 순으로 평균 74.2세였다<표 2>.

표 2.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노인특성	구분	f(%)
성별	남	56(27.9)
	여	145(72.1)
	계	201(100.0)
연령(만)	65-69세	53(26.4)
	70-74세	61(30.3)
	75-79세	48(23.9)
	80세이상	39(19.4)
	계	201(100.0)
	평균(S.D.)	74.2세(6.053)
가족형태	삼대동거	86(42.8)
	노인부부	46(22.9)
	노인단독	69(34.3)
계	201(100.0)	
건강상태	건강	25(12.4)
	건강한 편	65(32.3)
	건강하지 않은 편	103(51.2)
	아주 건강하지 않음	8(4.05)
계	201(100.0)	
학력	무학	73(36.3)
	초등학교	87(43.3)
	중고등학교	39(19.4)
	대학교	2(1.0)
계	201(100.0)	
소득	100만원 미만	83(72.2)
	100만원-200만원 미만	17(14.8)
	200만원 이상	15(13.0)
	계	115(100.0)

가족유형은 삼대동거가구가 42.8%, 노인 단독가구가 34.3%, 노인부부 가구가 22.9%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가 57.2%였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51.2%의 노인이 건강하지 않은편이라고 하였고 4.0%는 아주 건강하지 않다고 하여 반 이상(55.2%)의 노인이 건강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3.3%, 무학이 36.3%, 중고등학교 졸업이 19.4%의 순이었다. 가구소득은 72.2%가 100만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3. 조사대상 노인의 주거생활실태

1) 주택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는 52.2%가 20평 미만이었고 28.0%가 20-30평 미만으로 나타나 80.2%가 30평 미만이었다<표 3>. 주택건물의 층수는 63.7%가 1층이었고 29.4%가 2층이었다.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는 침실이 2개인 경우가 37.3%로 가장 많고, 1개인 경우가 32.8%, 3개인 경우가 22.9%의 순이었다.

욕실이 있는 경우는 39.3%에 불과하여 많은 노인들이 노인의 혈액순환 등에 좋은 목욕행위를 집에서 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거실이 있는 경우는 66.2%였고 식당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23.4%에 머물렀다.

현재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볼 때 32.8%를 차지하고 있는 1침실형의 경우는 그

룹 홈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여분의 침실이 있는 경우는 공유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단, 여기에서 그룹 홈은 본래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적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즉 1침실형 주택 등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의 단독주택은 필요시 일부 개조하여 노인 개인공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0인 정도의 노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된, 거실과 식당 및 욕실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공동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는 방안이다. 별도의 공동공간은 기존의 주택, 또는 넓은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용도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대안은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므로 경제적이며 노인에게는 자신의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해 주거나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너무 노후화되었거나 또는 규모가 클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래의 그룹 홈은 자연스럽게 다른 노인들과 만나게 되지만, 이 대안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공동공간으로 이동하여야 상호접촉이 가능하므로 노인 개인의 성격에 따라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

동일한 주택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 노인들에게는 전술한 그룹 홈 방식이 좋은 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여분의 침실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이든 심리적 이유이든 다른 사람과 동일한 주택에서 동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노인들에게는 공유주택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주거대안이 될 수 있다.

2) 주거생활실태

① 주택소유상태 및 거주기간

현재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53.2%였고 전세나 월세인 경우는 45.3%였다<표 4>. 또한 현재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10년 미만이 41.0%였고, 10-19년이 21.2%였으며 20년 이상인 경우는 37.8%였다. 전세

표 3. 노인거주 단독주택의 특성

주택특성	구분	f(%)
주택평수	10-19평	82(52.2)
	20-29평	44(28.0)
	30-39평	19(12.1)
	40평 이상	12(7.6)
	계	157(100.0)
주택층수	1층	128(63.7)
	2층	59(29.4)
	3, 4층	14(7.0)
	계	201(100.0)
침실 수	1개	66(32.8)
	2개	75(37.3)
	3개	46(22.9)
	4개	12(6.0)
	5개	2(1.0)
	계	201(100.0)
욕실유무	있다	79(39.3)
	없다	122(60.7)
	계	201(100.0)
거실유무	있다	133(66.2)
	없다	68(33.8)
	계	201(100.0)
식당유무	있다	47(23.4)
	없다	154(76.6)
	계	201(100.0)

표 4. 주택소유상태 및 거주기간

주거실태	구분	f(%)
주택소유상태	자가	107(53.2)
	전세	41(20.4)
	월세	50(24.9)
	무허가주택/무료	3(1.5)
	계	201(100.0)
주택거주기간	1- 9년	81(41.0)
	10-19년	42(21.2)
	20-29년	28(14.1)
	30-39년	24(12.1)
	40년 이상	23(11.6)
	계	198(100.0)

나 월세인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자가가 아닌 타가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다는 것은 이들 노인들을 위한 안정된 주거대안이 필요함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유주택 개념이 이들에게 하나의 주거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의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노인들에게 낯선 곳으로의 이동은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이들을 현재의 주택이나 적어도 동네에서 그대로 머물게 하는 aging in place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② 집에 머무는 시간 및 장소

조사대상 노인들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표 5>.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은 25.4%의 노인이 거의(21-24시간) 집에 있었으며, 17-20시간 집에 있는 노인도 35.3%나 되었다. 이는 주택이 노인에게 중요함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며, 이 긴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거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머문다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갈 곳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두의 경우 동일 주택 내에 동료 노인이 있거나 가까이 갈 곳이 있다면 이 시간을 덜 무료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보며, 따라서 다른 노인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공유주택이나 그룹 홈이 이들 노인에게 유용한 주거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표 5.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	f(%)
4시간 이내	3(1.5)
5-8시간	14(7.0)
9-12시간	27(13.4)
13-16시간	35(17.4)
17-20시간	71(35.3)
21-24시간	51(25.4)
계	201(100.0)

노인들이 주택에서 주로 머무는 곳은 침실(82.6%), 거실(54.2%), 부엌(56.0%)의 순이었다<표 6>. 이는 노인에게 침실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므로 침실을 계획할 때 많은 배려가 필요함을 말해 줌과 동시에, 현 주택의 거실이 노인들이 머물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 거실 대신 침실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노인의 생활영역이 침실에만 국한되는 것은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노인이 침실 외에 주택내외의 다른 공간에서도 지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확대적용된 그룹 홈은 노인들을 공동공간으로 나오게 해주므로 적절한 대안이 되리라 본다.

표 6. 주택에서 주로 머무는 곳(3순위)

장소	1순위 f(%)	2순위 f(%)	3순위 f(%)
침실	166(82.6)	31(23.7)	3(6.0)
거실	30(14.9)	71(54.2)	7(14.0)
부엌	3(1.5)	25(19.1)	28(56.0)
가게	1(.5)		
마당	1(.5)	4(3.1)	9(18.0)
침실2			1(2.0)
손님방			1(2.0)
계	201(100.0)	131(100.0)	50(100.0)

③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빈도 및 장소

조사대상 노인들이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빈도는 59.3%의 노인들이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하였고, 14.8%는 이틀에 한 번 만난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이웃과의 교류는 활발한 편이었다<표 7>. 그러나 한 달에 1-2회 만난다고 한 경우가 4.2%, 3-4회라고 한 경우가 10.6%로 나타나 거의 홀로 지내는 노인도 다소 있었다.

표 7.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이웃관계	구분	f(%)
친구나 이웃 만나는 빈도 (월)	1-2회	8(4.2)
	3-4회	20(10.6)
	5-6회	6(3.2)
	7-8회 (4일에 한번)	2(1.1)
	9-10회 (3일에 한번)	13(6.9)
	15-20회 (이틀에 한번)	28(14.8)
	25-30회 (매일)	112(59.3)
	계	189(100.0)
주로 만나는 장소	집앞(평상, 도랑, 마당)	94(49.7)
	경로당(52), 복지관(3), 학원(1), 취미활동공간(2), 교회(3)	61(32.3)
	식당(주점)	8(4.2)
	공원	6(3.2)
	집	4(2.1)
	기타	16(8.5)
	계	189(100.0)
집에서의 접대 장소	침실	76(53.1)
	거실	51(35.7)
	침실과 거실	7(4.9)
	기타(마당(2), 부엌(3), 가게앞(4))	9(6.3)
	계	143(100.0)

노인들이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장소는 집 앞(49.7%)이나 경로당 등(32.3%)이었다. 집에서 만날 때의 접대장소는 침실(53.1%)과 거실(35.7%)이 많았다. 침실이 노인에게는 잠자는 공간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침실이 거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거실이 접대장소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노인들이 거의 매일 친구나 이웃을 만나고 있음

을 볼 때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주거대안을 마련할 때 이웃과의 만남 장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의 개념인 그룹 홈과 공유주택에서는 거실과 부엌과 같은 공동공간을 공동사용공간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노인생활의 특성을 감안한 대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 주거대안을 마련할 때 개인공간인 침실공간 외에 노인들이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동공간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동거형태에 대한 노인의 요구

1) 거주위치 요구

노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50.0%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수리, 개조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였고, 20.0%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기 편리하게 지어진 다른 주택’이라고 한 반면, 23.0%만이 ‘어느 지역이든 살기 편리하게 지어진 다른 주택’이라고 하여 현재의 동네를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이는 aging in place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노인주거대안으로는 기존의 동네에 그룹 홈과 공유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들로 하여금 친숙한 살던 동네 안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표 8. 거주위치에 대한 노인 요구

거주위치에 대한 요구	f(%)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수리, 개조한 주택	100(50.0)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기 편리하게 지어진 다른 주택	40(20.0)
현재의 동네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	14(7.0)
어느 지역이든 살기 편리하게 지어진 다른 주택	46(23.0)
계	200(100.0)

노인의 특성에 따라 거주위치에 대한 요구가 다른지를 카이검증을 통해 알아본 결과<표 9>,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하고자 하는 aging in place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즉 60대 후반은 어느 지역이든 살기 편리하게 지어진 다른 주택에 대한 요구를 보인 경우가 많은 반면,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현재의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요구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2) 동거 요구

노인이 자녀 출가 후 부부끼리 혹은 노인들만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43.3%는 괜찮다고 하였으나, 39.3%는 당장은 괜찮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 같

표 9. 연령별 거주위치에 대한 요구

거주위치 요구	연령(세)				전체 f(%)
	65-69 f(%)	70-74 f(%)	75-59 f(%)	80이상 f(%)	
현재 동네에서 주택수리개조	15 (28.3)	34 (55.7)	26 (54.2)	25 (65.8)	100 (50.0)
현재 동네에서 새 주택	14 (26.4)	14 (23.0)	10 (20.8)	2 (5.3)	40 (20.0)
현 동네는 아니어도 아는 사람 있는 지역주택	3 (5.7)	4 (6.6)	3 (6.3)	4 (10.5)	14 (7.0)
어느 지역이든 편리한 주택	21 (39.6)	9 (14.8)	9 (18.8)	7 (18.4)	46 (23.0)
계	53 (100.0)	61 (100.0)	48 (100.0)	38 (100.0)	200 (100.0)
χ^2 값					22.713**

다고 하였고 17.4%는 무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하여, 노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이 많았다<표 10>. 이는 노인이 혼자 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거대안이 필요함을 암시해 주는 것이며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그룹 홈과 공유주택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표 10. 동거에 대한 요구

동거형태	구분	f(%)
노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생각	괜찮다	87(43.3)
	당장은 괜찮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79(39.3)
	무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35(17.4)
	계	201(100.0)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에 대한 생각	매우 찬성	18(9.0)
	찬성	56(27.9)
	보통	37(18.4)
	반대	78(38.8)
	매우 반대	12(6.0)
계	201(100.0)	
노인들 몇 분이 모여 사는 것이 좋은지	2인	2(2.8)
	3-4인	25(35.2)
	5-6인	26(36.6)
	7-8인	8(11.3)
	10-30인	10(14.1)
계	71(100.0)	
10인 이내 노인들의 공동거주에 대한 의견	매우찬성	17(8.5)
	찬성	39(19.4)
	보통	42(20.9)
	반대	94(46.8)
	매우반대	9(4.5)
계	201(100.0)	

한편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에 대하여는 44.8%가 반대하고 36.9%가 찬성하였으며 18.4%는 보통이라고 하여 찬성과 반대 비율이 비슷하였다. 반대반응을 보인 것

은 함께 모여서 살 경우 개인생활에 제한이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능한 개인생활에 제한을 주지 않으면서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한 주거대안이 필요하다 하고 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그룹 홈과 공유주택이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에 대하여 찬성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3-4인과 5-6인이 좋다고 한 경우가 각각 35.2%와 36.6%이고 10-30인이라고 한 경우는 14.1%에 불과하여 3-6인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선호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노인들은 대규모 공동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그룹 홈과 공유주택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이상 살펴본 동거에 대한 노인의 요구 중 노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의견만이 노인의 수입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표 11>,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인 가구가 많은 반면, 100만원 이상되는 가구는 당장은 괜찮지만 무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한 가구가 많았다.

표 11. 수입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의견

혼자 사는 것	노인가구 수입		전체 f(%)
	100만원미만 f(%)	100만원이상 f(%)	
괜찮다	46(55.4)	10(34.5)	56(50.0)
당장은 괜찮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문제가 될 것이다	24(28.9)	16(55.2)	40(35.7)
무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13(15.7)	3(10.3)	16(14.3)
계	83(100.0)	29(100.0)	112(100.0)
χ^2 값	6.458*		

3) 주택유형 및 규모 요구

노인들에게 주택을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주택을 선택할 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택유형은 73.1%가 단독주택유형을, 16.4%가 아파트 유형을 선호하여 단독주택 유형을 더 선호하였다<표 12>. 주택평수는 35.4%가 20평대를, 33.8%가 10평대를, 30.8%가 30평 이상을 원하여 다양하였다. 그러나 침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2개(41.5%)나 3개(34.9%)를 원하는 노인이 대부분으로, 현재보다 많기를 원하였다.

많은 노인들(69.2%)이 단독주택 유형과 10평대와 20평대의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단독주택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유주택이나 그룹 홈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노인들을 위한 주거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한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하는 점이라고 본다. 또한 2개나 3개의 침실을 원하는 노인들이 많게 나타난 결과는 침실 1개인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기보다는 여분의 침실을 둬으로써 가족이나 친지들이 방문할 경우 자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주택이나 그룹 홈 형태를 취하

게 되면 주변 노인들과 가까이서 일부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으리라 본다.

표 12. 주택유형 및 규모 요구

요구	구분	f(%)
주거유형	단독주택	147(73.1)
	연립주택	12(6.0)
	저층아파트(5층 이하)	21(10.4)
	고층아파트(10층 이상)	12(6.0)
	기타	9(4.5)
	계	201(100.0)
주택평수	20평 미만	66(33.8)
	20-29평	69(35.4)
	30-34평	60(30.8)
	계	195(100.0)
침실 개수	1개	22(11.3)
	2개	81(41.5)
	3개	68(34.9)
	4개	24(12.3)
	계	195(100.0)

한편 주거유형에 대한 요구는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택평수에 대한 요구는 조사대상 노인의 성별, 가족형태, 수입, 현 주택의 주택평수, 소유상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13>.

표 13. 노인특성별 평수요구

특성	구분	주택평수 요구			
		20평미만 f(%)	20평대 f(%)	30평이상 f(%)	계 f(%)
성별	남	8(14.3)	17(30.4)	31(55.4)	56(100.0)
	여	58(41.7)	52(37.4)	29(20.9)	139(100.0)
	계	66(33.8)	69(35.4)	60(30.8)	195(100.0)
	χ^2 값	24.878***			
가족형태	삼대동거	16(19.3)	33(39.8)	34(41.0)	83(100.0)
	노인부부가구	11(23.9)	18(39.1)	17(37.0)	46(100.0)
	노인단독가구	39(59.1)	18(27.3)	9(13.6)	66(100.0)
	계	66(33.8)	69(35.4)	60(30.8)	195(100.0)
	χ^2 값	30.504***			
수입	100만원미만	34(41.5)	31(37.8)	17(20.7)	82(100.0)
	100만원이상	2(6.9)	6(20.7)	21(72.4)	29(100.0)
	계	36(32.4)	37(33.3)	38(34.2)	111(100.0)
	χ^2 값	26.491***			
주택평수	10-19평	46(56.1)	27(14.0)	9(10.0)	82(100.0)
	20-29평	6(14.0)	17(39.5)	20(46.5)	43(100.0)
	30평 이상	3(10.0)	7(23.3)	20(66.7)	30(100.0)
	계	66(33.8)	69(35.4)	60(30.8)	155(100.0)
	χ^2 값	48.065***			
소유	자가	21(20.0)	41(39.0)	43(41.0)	105(100.0)
	임차	44(50.6)	27(31.0)	16(18.4)	87(100.0)
	계	65(33.9)	68(35.4)	59(30.7)	192(100.0)
	χ^2 값	21.882***			

남자노인은 30평 이상의 큰 주택을, 여자노인은 20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삼대동거가구는 20평대나 30평 이상의 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고, 노인부부가구는 30평대 이상의 주택을, 노인단독가구는 20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20평 미만나 20평대의 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고 100만원 이상인 가구는 30평 이상의 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다.

현 거주 주택의 평수에 따라서는 원하는 주택평수도 비례하여 현재 10평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20평 미만의 주택을, 2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30평 이상의 넓은 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30평 이상의 넓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가구는 20평 미만의 작은 주택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다.

침실개수에 대한 요구는 성별, 가족형태, 수입, 주택평수, 침실수, 소유상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14>.

표 14. 노인특성별 침실개수 요구

특성	구분 구분	침실 개수 요구				계 f
		1개 f(%)	2개 f(%)	3개 f(%)	4개 f(%)	
성별	남	4(7.3)	10(18.2)	28(50.9)	13(23.6)	55
	여	18(12.9)	71(50.7)	40(28.6)	11(7.9)	140
	계	22(11.3)	81(41.5)	68(34.9)	24(12.3)	195
	χ^2 값	24.791***				
가족 형태	삼대동거가구	2(2.4)	24(28.6)	38(45.2)	20(23.8)	84
	노인부부가구	5(11.4)	17(38.6)	20(45.5)	2(4.5)	44
	노인단독가구	15(22.4)	40(59.7)	10(14.9)	2(3.0)	67
	계	22(11.3)	81(41.5)	68(34.9)	24(12.3)	195
χ^2 값	49.595***					
수입	100만원미만	10(12.3)	38(46.9)	27(33.3)	6(7.4)	81
	100만원이상	0(.0)	7(24.1)	11(37.9)	11(37.9)	29
	계	10(9.1)	45(40.9)	38(34.5)	17(15.5)	110
	χ^2 값	19.292***				
주택 평수	10-19평	10(12.3)	45(55.6)	22(27.2)	4(4.9)	81
	20-29평	4(9.1)	11(25.0)	22(50.0)	7(15.9)	44
	30평 이상	3(10.3)	8(27.6)	8(27.6)	10(34.5)	29
	계	22(11.3)	81(41.5)	68(34.9)	24(12.3)	154
χ^2 값	27.084***					
소유	자가	6(5.7)	34(32.4)	46(43.8)	19(18.1)	105
	임차	16(18.4)	45(51.7)	21(24.1)	5(5.7)	87
	계	22(11.5)	79(41.1)	67(34.9)	24(12.5)	192
	χ^2 값	22.079***				

남자노인은 침실수가 3개나 4개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노인은 2개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가 삼대동거인 가구는 3개나 4개의 침실을, 노인

부부가구는 3개의 침실을, 노인단독가구는 1개나 2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이 많아질수록 원하는 침실수도 증가하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개의 침실을, 1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개의 침실을 원하는 가구가 많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가 넓을수록 침실수가 많은 주택을 원하여 현재 10평대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2개의 침실을, 20-29평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3개의 침실을, 3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4개의 침실을 원하였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3개나 4개의 침실을, 임차하고 있는 노인은 1개나 2개를 원하였다.

IV.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토대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1. 노인거주 기존주택에의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의 적용가능성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 최소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노인에게 안정되고 편한 노후생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인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동네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낯선 장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제까지 지내왔던 많은 것들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이 노인시설주거로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으로부터 생활패턴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본다. 즉 집단으로 거주하게 됨으로써 ‘개인’이 무시되고,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로서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노인시설이 필요함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을 그룹 홈과 공유주택으로 보고 우리나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주거생활실태 및 요구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용가능성이 있다.

첫째, 많은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는 침실이 1개나 2개 이면서 욕실이 없는 20평대 이하의 소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방문결과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은 낮았다. 또한 이들은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현재의 주택에서 이동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는 별도의 노인전용주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각 거주노인에게 맞추어 일부 개조하여 그대로 살게 하는 편이 적절함을 말해 준다. 단 이들 노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약화될 것임을 예측해 볼 때 가능한 현재의 주택에서 오래 머물면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식사와 목욕 및 교류 등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공간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공동공간은 대규모가 아닌 10인 정

도의 노인들을 단위로 하여 한 곳씩 제공해 주는 것이 시설적이 아니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에 적절하리라 본다. 이 공동공간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넓은 노인거주 주택의 일부공간을 임대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용도의 건물을 일부 임대하거나 구입하여 개조하거나 기존의 양로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것이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되는 그룹 홈 형태를 확대하여 본 형태가 된다.

이러한 변형된 그룹 홈 개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 내 침실에서 보내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외출하거나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리라 본다.

둘째, 많은 노인들(43.5%)이 다른 노인과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의 경우처럼 하나의 단위주택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의 노인주거대안은 수용가능성이 낮으리라 본다.

이보다는 각각의 노인들이 개인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하되 이를 10인 이내의 단위로 묶어서 공동 케어 및 관리를 하는 방식의 주거대안이 적합하다고 본다. 즉 식당이나 거실 같은 성격의 소규모 공동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안이 적합하며 따라서 수용가능성도 있으리라 본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는 식사배달 및 방문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일부 조사대상 노인들은 침실이 2개인 소규모 주택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노인과 소규모로 동거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노인도 어느 정도 되었다.

이는 2침실 이상인 노인거주 주택의 경우 공유주택 개념을 적용한 대안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여분의 침실이 있는 다른 노인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낸다면 경제적일 뿐 아니라 혼자 사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주거대안이 되리라 본다. 이 경우도 주택 자체의 질은 목욕공간이 없는 등 낮으므로 주택은 두 노인가구를 위한 개인공간으로 보고 식사와 목욕행위 등은 전술한 공동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본다.

2.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노인주거대안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로서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시설로 입소하기 전까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노인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식사준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공동공간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오래도록 기존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개념을 토대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는 각 단독주택은 그대로 활용하되,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거주노인의 행동특성에 따라 일부 개조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월세나 전세로 있는 노인 중 다른 노인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노인가구는 여분의 침실 등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노인과의 동거를 원하는 노인가구와 동거하도록 해준다. 즉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한다. 이 때 기존의 부동산 중개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공유주택이나 개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0인 정도가 공동식사와 목욕 및 담소를 하는데 필요한 부엌, 식당, 거실, 욕실공간 등으로 구성된 공동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준다. 이 공동공간은 기존의 넓은 주택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건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으며 기존의 양로원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동공간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며, 케어 및 운영담당자의 교육 및 배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동공간을 사용하는 노인들의 구성에 따라 노인들로 하여금 자치관리하거나 또는 노인관련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가능하리라 본다.

표 15. 공유주택과 그룹 홈 및 확대적용된 그룹 홈의 개념비교

주거유형	개념
공유주택	-기존의 노인 소유 및 거주 단독주택에 주택 비소유 노인이 입주하여 동거하는 형태 -단순 임대방식, 또는 케어나 친구, 집안일 제공방식
그룹 홈	한 건물 내에서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됨 -개인공간: 침실, 욕실, 거실, 부엌, 수납공간 등 -공동 공간: 공동 부엌, 식당, 거실 등
확대적용된 그룹 홈*	한 동네에서 개인공간(주택)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됨. -개인공간: 기존의 노인거주 단독주택이나 2인 이상의 노인거주 공유주택 -공동공간: 공동 부엌, 식당, 거실, 욕실 등 넓은 주택의 일부, 다른 용도의 건물 일부나 전체 등 별도의 건물에 제공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확대적용된 그룹 홈은 코하우징과 기본적인 공간구성방식은 유사하나, 코하우징은 계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자치적으로 진행되며 상호협동을 전제로 핵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노인주거대안은 기존의 노인거주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으로서 노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온 주택이나 동네를 떠나지 않고 최대한 오래도록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대안이 되리라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인주거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aging in place를 노인주거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접근을 그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룹 홈과 공유주택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부산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생활 실태 및 동거관련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용으로 시작된 그룹 홈은 공간구성이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분되어 사생활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공동부엌 및 식당과 거실을 사용함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므로 특히 혼자 거주하거나 부부만이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에 적합한 주거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둘째, 기존의 잉여자원을 상호공유하는 대안인 공유주택은 여분의 개인침실이 있는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가장 경제적인 주거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는 침실이 1개나 2개이면서 욕실이 없는 비교적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주택 내의 침실에서 보내고 있었고 이웃 및 친구와의 만남도 활발한 편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들은 현재의 주택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며 다른 노인과의 동거는 40.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경우 3인-6인의 소집단이 동거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토대로 한 그룹 홈과 공유주택은 이들 노인단독가구에 수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안하고자 하는 단독주택에 혼자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노인주거대안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단독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침실 수 및 거주자의 성격에 따라 그룹 홈 또는 공유주택 형태로 사용하고 10인 정도의 노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부엌, 식당, 거실, 욕실로 구성된 공동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는 방안이다.

하나의 대안은 본래의 그룹 홈 개념을 확대적용한 그룹 홈 형태이다. 본래의 그룹 홈은 동일한 주택 내에서 6-8개의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으로 구성되며, 개인공간은 침실+욕실+거실+수납공간으로 이루어지고, 공동공간은 공동부엌+식당+거실공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확대적용된 그룹 홈은 개인공간과 공동공간이 동일한 주택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기존의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주택들이 개인공간이 되고, 별도의 공동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다. 기존의 개인주택들이 질적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욕실이 거의 없으므로 공동공간영역에 욕실을 두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다른 점이다.

이 형태는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접근용이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대안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질적 수준

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노인의 신체적 상황 및 행동특성 등을 감안한 개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분의 침실이 있는 주택에 2인 이상의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다.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 주택에 욕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침실을 개인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동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욕실은 그룹 홈의 공동공간에 있는 욕실을 공동사용하도록 한다.

단, 공동공간의 운영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간의 임대와 구입을 결정하며 운영관리의 책임을 지되, 운영방식은 노인들이 자치운영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 중 선택하도록 한다.

이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확대적용한 그룹 홈 형태와 공유주택 형태는 기존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에 보다 안정적인 노인주거대안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면접소요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하여 부산광역시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1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지역과 주택유형 및 표본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지역 및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대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노인주거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대년·최정신·조명희·권오정(2000), 개발 이념을 중심으로 본 스웨덴의 치매노인용 그룹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5), 21-30
2. 구한나리·최령·이연숙(2002), 치매노인을 위한 일본 그룹홈 현장 사례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1), 139-142
3. 권오정·조명희·김대년·최정신(2000), 스웨덴 치매노인 그룹홈 모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6(5), 41-49
4. 오찬옥(2002), 노인재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디자인의 방향, 138-140, 한국노년학회 및 연세대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주택과 서비스 개발방향, 국제심포지움 자료
5. 이연숙(1993), 한국 노인주택 모델방향설정 및 제1 대안적 주택유형, 9-59,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정책 및 개발방향설정.
6. 최정신·이연 폴슨(1997),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의 그룹홈, 한국주거학회지 8(3), 67-79
7. 통계청(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인구부문), www.nso.go.kr
8. Day-Lower, D. (1983), Shared Housing for Older People: A Planning Manual for Group Residences, Shared Housing Resource Center, Inc.

9. Dobkin, L., Shared Housing for Older People, National Shared Housing Resource Center, Inc.
10. Pastalan, L. A. (ed.) (1990), Aging in Place: The Role of Housing and Social Supports, The Haworth Press, Inc.
11. Pynoos, J., Hamburger, L., and June, A. (1990), Supportive Relationships in Shared Housing, 1-24, in Pastalan L. A. (ed.) (1990), Aging in Place: The Role of Housing and Social Supports, The Haworth Press, Inc.
12. Taira, E. D. & Carlson, J. L. (ed.) (1999), Aging in Place: Designing, Adapting, and Enhancing the Home Environment, The Haworth Press, Inc.

접수일(2008. 4. 1)
수정일(1차: 2008. 5. 19, 2차 6. 5)
게재확정일(2008. 6. 24)